

겨·울·소·환 '아트 바캉스'

조인호 평론가가 본 '광주수영대회 1주년 기념 청년작가14인전' <중>

일상의 사실과 그 이면의 사실을 드러내다



'한여름에 들려주는 겨울 이야기.'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아트바캉스전을 개최한다. 그 어느 해와는 다른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담긴 전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의미를 담은 기획이기도 하다.

30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또 한번의 겨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스키장, 설산의 풍경 등을 통해 지난 겨울의 추억을 소환하는 기획으로 설치, 회화, 사진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이상원 작가와 김천수 작가는 겨울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키장의 풍경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담았다. 이상원 작가는 각자의 포즈로 스노우 보드와 스키를 타고 있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모습을 가변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며 눈밭에서 아래로의 질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과 멀리 눈덮인 산을 담은 작품도 선보인다.

사진작가 김천수의 작품에 등장하는 건 오래된 스키장이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 강원도 '알프스

스키장'은 새로운 스포츠가 선사한 이국적인 여가문화 덕분에 호황을 누렸다. 당시 호황기 때의 과거는 곱팡이 가 된 사진으로, 그리고 최근 10여 년을 휴장 상태로 남겨진 현재는 작가의 사진에 기록돼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방대한 자연의 모습을 묵화솜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사람을 배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보여주는 작품을 제작하는 노동식 작가의 설치 작품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이며 윤병은 작가는 유리창을 통해 내어다 보이는 눈오는 풍경을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가 이호욱 작가의 그림은 얼핏 얼음처럼도 보이는 몽환적인 하늘과 흑백의 진경산수화의 결합이 인상적이다. 작품을 가득채운 하늘은 겨울의 풍광을 한눈에 보여주며 관람자를 압도한다. 유은석 작가는 부유하는 섬 위에 지어진,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건물을 통해 현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갤러리
30일~8월 25일
'또 한번의 겨울' 전

이호욱 작 '설백(雪宅)'

광주 기업 네온크리에이션 '마법소녀 디디' 30일 KBS1 방영



일랜드 텔레가엘이 제작에 참여해 시즌 1을 완성했으며 현재 시즌 2를 제작중이다. 배급은 네온크리에이션과 스페인의 이미지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방송사 RTE, 스페인 방송사 RTVE 등과 방송 판권을 논의중이다.

오리지널 스토리라인은 국내 작가가 작업했지만 시나리오는 국내 작가와 영국 BBC작가진과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마법소녀 디디'는 동화책처럼 아기자기한 '아브라다브라' 마을에서 귀여운 친구들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마법 연습생 '디디'는 마법을 통해 친구들을 도와주려 하지만, 매번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디디'와 귀여운 마을 친구들이 협동해 문제를 풀어가는 교육용 코믹 판타지물이다.

한편, 네온크리에이션은 2011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배급사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지역기업 네온크리에이션(Neon Creation)이 제작한 TV 시리즈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디디'가 오는 30일 오후 3시 KBS 1TV에서 방영된다.

'마법소녀 디디' 제작에는 총 80억원 투입됐으며 네온 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영국 등 유럽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제작했다. 또 디즈니, 소니, 마블 등 글로벌 브랜드와 싱가포르 튠즈미디어그룹, 아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청년작가 14인전-DEEP DIVE INTO YOU' 전(8월5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는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상을 재집하고 이미지를 가공해서 사실과 그 이면의 사실을 드러내는 작가들의 작품은 흥미롭다.

최요안은 잡지사 일간지, 인터넷 이미지들을 일상의 흔적으로 수집하고 모아 붙여 사실감 넘치는 콜라주 작품들로 편집해낸다. '양산을 쓴 여인' (2019) '인왕제색도' (2019) 등 동서양 명화들을 화필이 아닌 이미지 모음으로 재구성해내기도 하고, 인상파 풍경화에도 같은 'Impression' (2019)이나 한 컷의 광고사진 같은 'Easy Rider' (2019)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 파편들을 짜맞추고 필요에 따라 화필로 그려 넣어 실제인 듯 허상인 듯한 화면들을 선보인다.

설 박은 먹을 염색한 한지를 콜라주해서 장대한 산천의 '어떤 풍경' (2017) 연작을 연출해낸다. 전통필묵법에 따라 자연의 기운과 산세를 화필로 응축해내는 대신 먹의 농담이 다른 화지들을 찢어 붙여가며 산수화풍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벽에 고정된 화폭을 벗어나 광목천으로 길게 늘어뜨린 '불완전한 풍경에 대하여' (2020)는 화지 콜라주 대신 천에 먹이 직접 스미고 번지며 실제 풍경인 듯 추상인 듯 모호한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윤연우의 작업은 회화와 직조를 결합한 연작들이다. '아근하는 여자', '취업 준비하는 남자' 등 2014-15년의 인물초상들,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청설모', '오소리', '코뿔소' 등은 그림의 소재들을 수채화로 그린 뒤 일러스트

최요안-잡지·신문 찢어 콜라주로
설 박-실제? 추상? 모호한 풍경
윤연우-회화와 직조 결합 눈길
송지운-원색·도형, 피로사회 표정들
선영현-대중매체 허구성 비판

형태로 단순화하고 그 이미지들을 직조로 옮겨내는 긴 시간 노동집약 작업들이다. 수채화의 즉흥적 감각에 이성적인 재구성과 오랜 시간의 손맛을 결합시켜낸 것이다.

송지운의 '낮선 풍경' 연작은 과일 정물과 식물들과 풍경을 평면구성형태로 결합시킨 화폭들이다. 삶에 대한 단상과 기억들을 조합시킨 원색조의 색채와 단순 간결 도형화된 이미지들은 언뜻 경쾌하고 감각적이다. 하지만 드러날 듯 말 듯 상징체로 결들여진 표정들로 피로사회의 우수와 쓸쓸함을 내포시키고 있다.

또한 선영현은 범람하는 대중매체의 실제와 허구성, 끊임없이 생성·편집·조작되는 이미지들을 픽셀화된 구조체들의 형태로 담아놓았다. 최근 계속하고 있는 'Frame' (2018-2020) 연작은 기호패턴처럼 동일한 반복도상을 올린 사각 또는 육각의 입면체들을 가변형태로 연결해 구성시킨 것이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1 설 박 작 '어떤 풍경'
2 송지운 작 '낮선 풍경-heart flower'
3 선영현 작 'Afterimage V'
4 최요안 작 'Easy Rider'
5 윤연우 작 '청설모 (원화 객수진)'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